

# 光日春秋

장인순



살갓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으로 계절을 느끼는 가을은 농부들에게는 땅 흘러 일군 수확의 계절이며, 동시에 많은 수험생에게는 고통과 인고의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추석이라는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에 조상의 묘를 찾는 것 외에도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황금연휴라고 하는 황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아름다운 연휴가 황금알을 낳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 시간을 창조하는 삶 '독서'

나는 일 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황금연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향이나 혹은 멀리 여행을 가지 않는 생활 철학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적어도 하루 1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책을 읽는다. 이런 연휴에 움직이면 많은 시간과 돈을 길에 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울 뿐만 아니라, 긴 연휴 후에는 심신이 피곤하여 하는 일에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며칠씩 책을 읽으면 피곤한 것도

사실이지만,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넘길 때의 즐거움, 특히 연휴 끝자락에서 느끼는 지적 포만감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행복감이다. 인생의 삶의 가치를 감격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글을 통해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현재를 결단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해안을 기르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읽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빠서 매 끼니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현대를 사는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시간을 만드는 삶, 다시 말하면 숨어있는 시간을 찾고 시간을 창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

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만의 작은 시공간에 갇혀 살지만, 책을 읽고 지적 배고픔을 채워가는 사람은 시공간을 훌쩍 뛰어 넘을 수 있는 지적 체력을 가진으로서 담대하고 적절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선진 시민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독서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간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식이 되어야 한다.

특히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추석이라는

## 나의 독서 일기

명절에 들떠 있기보다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함께 책을 읽는다면, 수험생들은 더 할 나위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수험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가정에서 조용히 책과 함께 하면 가정의 화목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길 위에서 후회외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책 읽는 것 같이 쉽고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쉬운 책 읽기를 위해 우선 책을 사는 연 습을 열심히 하자. 나는 평소엔 시간이 있거나 혹은 출장을 갈 경우 시간만 있으면

언제나 미술관이나 특히 대형 서점에 들러서 책을 보고 많은 책을 산다. 그리고 출장 중에 남는 출장비는 모두 책을 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책 선물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책을 선물하는 것은 인격을 전하는 것이며, 존경하는 사람이나 좋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으로 가격에 전혀 개의치 않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 독서가 곧 황금알

단돈 1만 원짜리 선물은 아마도 책이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책이 갖는 언어의 생명력 때문이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도 시간이 지나면 버리기 마련이지만, 좋은 책은 영구히 보존하는 특성이 있다. 이 아름다운 추석이 맞이하는 과일 바구니에 멋진 책 한 권쯤 함께 가면 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독서의 중요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토마스 바트란의 "책이 없다면 신도 짐목을 지키고, 정의도 잠자며, 자연과학은 경직되고, 철학도 문학과 말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바로 책이 없는 사회는 배반부르던 행복한 동물의 사회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황금연휴에 책을 읽어 황금알을 낳자.

<한국지역연구회 고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보완 필요하다

정부가 10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광역권 경제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호남 광역경제권에선 새만금 개발, 여수엑스포, 호남고속철도, 신재생에너지, 광(光)소재 산업 등 5개 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16개 시도에 관계없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권역 내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다. '규모의 경제'와 지역간 연계·상생 전략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도 높여주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권역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권역별 경제규모의 차이는 크다. 광주·전남·전북이 한 경제권으로 묶인 호남권의 경제력은 수도권과는 비교하지 않더라도 대구·경북의 대경권, 부산·울

산·경남의 '동남권'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산도 영남은 두 권역에 배분된다. 호남권은 자칫 출발부터 다른 권역과의 현격한 경제력 및 예산 차이로 경쟁조차 못하고 낙후될 가능성이 있다.

호남권내에서도 전북의 새만금에 무게가 실려 있다. 새만금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반면 J프로젝트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제외됨에 따라 전남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새만금에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까지 들어서게 돼 있어 무안국제공항과 광양항의 앞날에도 비상이 걸렸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는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조성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고 규제를 풀면 지방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려면 활성화 전략을 옹호하더라도 대구·경북의 대경권, 부산·울

###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공약 꼭 지켜야

광주시의회와 총북·총남도의회, 전남·전북도의회가 어제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5개 시도 광역의회는 성명을 통해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완공할 것을 촉구했다.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염원하는 호남과 충청지역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당초 2017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를 오는 2012년까지 앞당겨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 4월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선 2012년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예산을 보면 정부의 무관심이 확연히 드러난다. 국토해양부는 호남고속철도 내년 예산으로 2천620억원을 반영,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5조8천75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지만 2017년 완공을 전제로 '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호남고속철도는 호남 광역경제권의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려면 최대한 빨리 완공돼야 한다. 경부고속철도가 2010년 완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이 무산되면 호남의 상심같은 큰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구체적 추진일정 등 예산 확보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조기 완공의 지가 없으면 '적기 완공' 등으로 얼버무리려는 것은 호남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 대통령부터 공약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 無等鼓

쌀이 한반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5천년 전으로 추정된다. 남한강이나 해주, 영산강 일대에서 재배했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쌀은 콜레스테롤이 아주 낮은데다 양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으며 여러가지 식품과 잘 어울려 식품의 맛을 더하게 한다. 소화 흡수율도 매우 높고 육류와 채소를 많이 섭취하지 않더라도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은 450만~462만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기정화와 흡수조절 기능 등 비교역적 공익 기능까지 환산할 경우 쌀 농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6~8월 집중 호우에 흡수를 막는 기능만으로도 17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신흥개발지역이 매년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이면에는 아산과 논이 사라진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비가 잦고

있는 환경정화 기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벼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식물 중 단위면적 당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그보다 더 많은 탄산가스를 흡수한다.

추석을 앞두고 전남지역 곳곳에서 햅쌀 수확이 한창이다. 전남도는 올 벼 평균 수확량보다 한 달 가량 모내기 시기를 앞당겨 주는 것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했다. 모내기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수확시기도 빨라져 햅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였다.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지난해 보다 3천390여ha가 증가한 1만2천ha의 논에서 모내기 시기를 앞당겨 햅쌀 수확도 2만700여이 늘어나게 됐다.

전남산 햅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쌀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333억원대의 수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반짝거리는 햅쌀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워진다. 특히 올해는 농가 소득증대와 맞물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재철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 햅쌀

##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정모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밤하늘을 보면서 과학 이야기를 해주셨다. 엄마가 얘기해주는 과학 이야기는 정말 실감나고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나는 얼른 밤이 오기를 기다린 적도 있다. 어느 날 엄마는 나에게 세상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학교에서 우유 잘 먹고 있지?"

"응, 그런데 가끔 끈적하고 안 먹으면 다음 날 우유에 건더기가 생겨, 왜 그런 거야?"

"상해서 그렇단다. 바로 우유 속에 있는 세균 때문이지."

"세균? 우유 속에? 난 못 봤는데... 막 꿈틀거리?"

"아니~ 세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그러기도 해."

"어디에 있어? 지구에 있어?"

"지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외에도 다양한 자연환경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남극 기온은 영하 60도 이

물이고, 다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도 계속 이런 미생물들이 발견되고 있거든."

"새로 발견된 다른 미생물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같이 찾아볼까?"

엄마는 냉장실에서 간식을 가져오면서 나를 컴퓨터 앞으로 부르셨다. 나는 미생물에 대해 점점 관심이 깊어졌다. 엄마는 미생물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시다가 나를 향해 반갑게 소리치셨다.

"이것 봐,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 한 복판에 있는 2만 8천 년 된 타르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됐어!"

"어떻게 발견한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견했나?"

"하하, 도심이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기사에 따르면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의 환경과학자 데이비트 크롤리 교수와 그 연구팀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김종식 박사가 함께 관찰했다고 하는구

다. 연구팀이 거품의 정체를 추적한 결과, 거품은 아스팔트를 먹고사는 박테리아가 배출하는 메탄가스임이 밝혀졌지. 타르 구멍에서 박테리아 수백 종을 발견한 거고."

"우웬, 아스팔트가 맛있을까? 그걸 먹고살까~"

"덕분에 우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잖아. 이 아스팔트를 먹는 박테리아의 DNA 염기서열까지 해독하게 되었으니 말이지. 연구팀은 아스팔트를 먹는 박테리아에서 석유를 분해하는 효소 세 가지를 발견했다. 이 효소들을 이용해 토양이나 해양에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오염을 제거할 수 있어. 그리고 신약을 발명하고 바이오연료를 제조하고 석유 회수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을 거야."

"음... 그렇게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른 박테리아도 더 많이 발견됐으면 좋겠다!"

"맞아. 이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극한미생물들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디가에 있을지도 모르지."

"엄마, 앞으로는 어떤 신기한 박테리아가 우리 앞에 나타날까? 생각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려나~ 그렇지?"

"응, 나도 그래." <과학칼럼니스트>

## 아스팔트 먹는 박테리아

하로 내려가고 심해져 열수분화구 주변의 수온은 100도가 넘거든. 이렇게 뜨겁고 뜨거운 곳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이 없는 곳은 없어."

"오아~ 생각만으로 뜨겁고 뜨겁다! 그냥 안 뜨겁고 안 뜨거운 곳에서 살면 안 돼?"

"그 생물들은 그들이 있는 환경이 최적이라고 느끼는 거겠지. 80도 이상 되는 고온 환경에서만 잘 자라는 초고온균 예로 해볼까? 초고온균이 생산하는 단백질은 100℃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온성 미생물이 고온에서 오염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도 중온균이 생산하는 효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중온균 효소들이 변성을 일으키는 극한 환경에서 안정하게 때문에 신기한 것이지."

"음... 좀 신기한 균이네?! 다른 종류 또 있어?"

"신기하지? 세균은 원래 중성(pH 7)에서 잘 자라는 성질이 있어. 그런데 호산성균이라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고, 호염균은 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해서 소금 농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 살아."

"잠깐! 종류가 많으니까 헷갈려!"

"암석 안에서 자라는 암석균도 있어. 독성물질이 있어야 사는 내독성균도 있고, 건조내성균은 생명의 필수요건이라는 물이 거의 없는 곳에서만 사는 미생

## 기고

배종원



최근 원정화 여간첩 사건과 탈북자들의 보편사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아사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넘어온 순수한 사람들이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수는 1953~2007년 말까지 1만2천명이었다. 이 중 2만 명이 넘는 1만4천명을 넘어서었다. 이처럼 탈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교육시설 및 사후 지원관리 대책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어 탈북자들이 범죄에 빠지는 등 사회생활 적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 하지 않을까. 물론 이들 중에는 원정화와 같은 남파간첩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은 순수 북한이탈주민과 간첩을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의 변동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수 북한이탈주민들이 이같은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시각으로 흐르고 그것이 편견으로 굳어져 더욱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여러 사회적응정책 및 관리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보편사기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아무리 완벽한 정

## 북한 이탈주민과 남북 통일

단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감시와 통제, 가난과 굶주림, 생과 사를 오가며 오로지 한가지 꿈을 위해 중국 단둥, 베트남 및 캄보디아, 태국, 방콕 등을 거쳐 남한으로 이르는 긴 여정을 생각해 보라. 그들의 생각에는 남한은 쫓겨온 고향이 흐르는 가나안이지 않을까. 자유와 평등,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복지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주어진 남한 사회는 어떠한가. 반세기라는 긴 시간 장벽이 만든 언어와 문화 갈등, 상반된 정치·경제 체제로부터 오는 이념적 갈등 그리고 탈북자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사회·경제·교육적 차별 등 그들의 부른 꿈은 점점 절망으로 빠져들어 갔을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야 되겠는가. 그보다 먼저 그들을 포용하고,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는지 되돌아보

고 있지 않을까. 설령 아무리 완벽한 정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해외여행 가고 비싼 외제 승용차에 수천만원 하는 모피옷 구입에 앞다투면서 바로 옆에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인색한 현실이 안타깝다.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동포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이웃이다. 우리가 애정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이유를 열거한다면 만가지도 넘겠지만 그 장벽의 콘크리트를 녹인 것은 총과 탱크도 아니며, 위정자나 학자도 아닌 서민이 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 사랑이었다. 통일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한다.

<광주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 스쿠터 차대번호 확인 쉽게 동일한 곳에 표기해야

얼마전 스쿠터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경찰에서 찾아줬는데 누군가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분실 접수되는 신고 중에서 오토바이 도난 신고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등록절차가 필요없는 번호판 없는 50cc 미만 스쿠터는 절도범들이 노리는 단골 도난물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서 예를 먹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도난당한 스쿠터로 보이는 피해품을 발견하더라도 차대번호가 없어 차대번호

에 의지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차대번호의 위치가 일정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 조차도 차대번호 위치는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장시간 씨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 만드는 스쿠터는 차대번호 알기 쉽게 동일한 위치에 표기했으면 한다. 차대번호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도난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진규·여수시 신덕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정)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 회 생 활 부 2200-626	문 회 생 활 부 2200-626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 처 부 2200-616	여 령 매 체 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처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02-773-9335)	
(F A X 222-428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